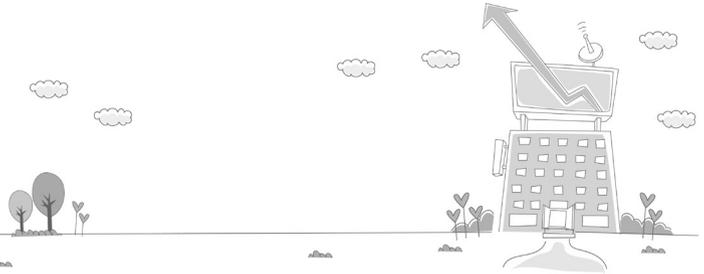


기관소식



농림축산식품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4.10월 ~'15.5월) 운영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를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시기로 판단하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14.10.6~'14.5.31)으로 정하여 집중적이고 총력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과거발생 시기) 구제역 : 1월('10년), 3~5월('00년, '02년, '10년), 7월('14년), 11월('10년) / 고병원성 AI : 1월('14년), 4월('08년), 11~12월('03년, '06년, '10년)

■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모든 지자체, 방역기관·단체에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① 우선,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AI 특별방역 TF팀(4개반 : 방역반, 점검반, 현장반, 홍보반) 구성·운영하면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농식품부는 전남 영암에서 AI 발생에 따라 9월 25

일부터 상황실 가동

② 전국 공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

③ 유사시를 대비한 초등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10.21~10.23) 동안 구제역 토론기반형 위기대응 훈련(10.22)과 지자체 자체 실행기반 훈련(7개 시·군) 이후, 방역평가대회 개최 추진

④ 구제역·AI 재발 가능성이 높은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시도 교차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중앙기동점검반(평시 8개반 → 강화 24개반)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집중 점검·관리

⑤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한 신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전화 1588-9060(중앙), 1588-4060(지자체) 불시 점검 및 사전(事前) 지자체 기동방역기구 운영에 대한 점검 강화

■ AI 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대책 이행에 역점을 두고, 발생원인 및 취약부분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① 최근 전남도 지역 AI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금번 개선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험평가 등을 통해 살처분 범위 설정 및 과거 발생농가 소독·예찰 강화

② 야생철새 이동경로 및 검사결과 등에 대한 상시협의체 구축

③ AI 방역관리지구(지정지역)는 시료채취물량을 확대하여 검사

* 검사물량(2배 확대): (현행) 월 4회 → (강화) 월 8회

④ 계열화 사업자(92개)에게 방역의무사항을 부여,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분기별 1회 이상)

⑤ 전국 가금농가 및 관련업체 방역준수사항에 대한 AI 방역교육 강화

* AI 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AI SOP 개정사항 등

■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중요한 만큼 농가별 철저한 접종 실태(백신공급, 접종현황)를 집중·관리한다고 밝혔다.

① 돼지를 분양(위탁)하는 돼지 농장에 대한 집중관리 강화

* 시군 농가별 공수의 전담배치, 분기별 1회 혈청검사, 월 1회 현장방역점검 등

② 시도별 취약 시군구를 선정하여 전국 일제 혈청검사 및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여 백신 미실시 농가 색출

③ 시군별 백신접종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운영하여 통해 담당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실태 집중 관리

④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농가별 백신 공급·접종관리 통합 전산프로그램 운영

⑤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는 농가는 과태료 처분 등 직접적 제재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

■ 농식품부는 AI·구제역 재발을 위해서는 축산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별방역기간 중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 금지 및 입국 시 휴대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축산관계자는 구제역·AI 발생국 여행을 삼가, 만약 부득이하게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축산농가는 긴장을 끈을 놓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구제역·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하는 등 철통같은 방역활동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른 닭·오리
사육농가의 차단방역 강화요청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농식품

부)는 검역본부가 올 3월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한 청둥오리가 최초 부착지인 충북 진천군 미호천 일대에 10월 19일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5차례 발생한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HPAI)가 HPAI 발생국을 경유한 철새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어, 검역본부는 2013년도부터 철새의 이동경로 및 서식지 파악을 위하여 철새에 GPS를 부착해 왔다. ('13년 70마리, '14년 65마리)

※ 이동경로(별첨 참조) : '14. 3.(충북 진천군) → 6.1.~10. 16.(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퉁허현) → 10.17.(경북 경주시 감포면) → 10. 19.(충북 진천 미호천 부근)

* 중국의 동 지역은 지난 9월 HPAI H5N6가 발생한 지역임

검역본부는 현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겨울철새가 HPAI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철새를 포획하거나 철새의 분변 등을 수거하여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HPAI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철새 도착지 주변 철새의 분변·폐사체 등에 대한 면밀한 정밀검사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우리나라에는 지난 9월 말경부터 이미 많은 수의 야생철새가 겨울철 월동을 위하여 시화호, 천수만 등 주요 철새도래지에 도착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므로, 철새를 통한 HPAI 유입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 등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검역본부는 야생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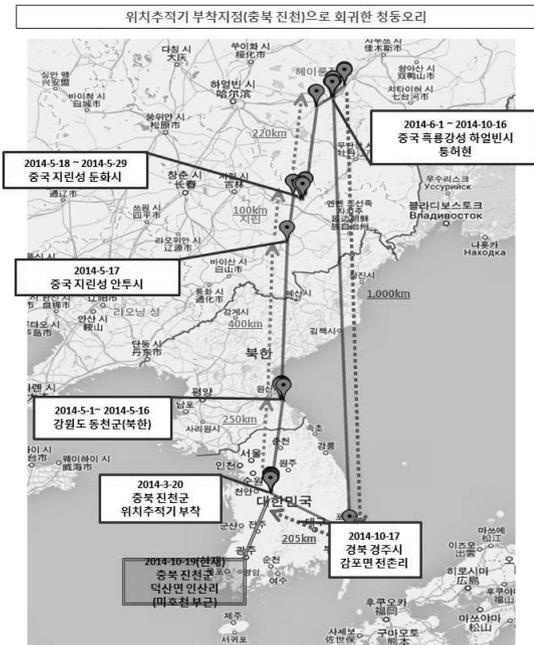
지자체, 농협 등 생산자단체(양계, 오리협회 등)에는 가금농가(닭·오리 등)에 대하여 소독 강화 및 야생철새와 접촉차단을 위한 차단막 설치 및 임상예찰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로 하여금 해당지역을 포함한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철새 분변시료 채취 등 HPAI 예찰을 강화토록 하였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가금(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 등에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농가주변을 매일 소독할 것
- 둘째, 농장주 및 농가관리인은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을 금지할 것.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의 농가는 축사 주변에 충분한 양의 생석회나 조류기피제 등을 뿌려 농가주변에 철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셋째,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의 경작지는 추수가 끝나는 대로 즉시 논갈기를 하여 철새가 농가주변에 모이지 않도록 할 것
- 넷째, 사료저장시설, 왕겨저장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철새 등 야생조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막 또는 비닐 등으로 가리고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
- 다섯째, 울타리가 없는 농가의 경우 사육시설 주변을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축사에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푼말을 설치할 것
- 끝으로, 검역본부는 철새도래지를 방문하는 낚시 애호가, 철새 사진작가 등 일반인은 철

새 분변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신발 세척·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금사육 농가 등 가금관련시설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위치추적기 부착 청둥오리 이동경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 축산분야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및 전국 젓소 유방염 방제 사업 교육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본부장 주이석)에서는 2014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업무 담당자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 축산분야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및 「전국 젓소 유방염 방제」 사업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축산분야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서 항생제 내성균 감소방안의 일환으로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국내 축산분야 동물용의약품의 허가 및 관리체계와 항생제 사용현황(검역본부 김돈환 사무관), 가축의 주요 호흡기질병 원인체 및 식중독세균의 분리(검역본부 김하영 연구사), 항생제 감수성검사 방법(검역본부 임숙경 연구관)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현장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항생제 신중사용 지도와 질병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국 젓소 유방염 방제」 사업 교육은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관련 유업체를 대상으로 젓소 유방염 감염소의 조기검출 및 감수성 약제 선발을 통한 효율적인 치료로 낙농가의 피해 감소,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올해에는 “젓소 유방염 발생양상 및 치료동향”에 관한 특강(전남대 서국현 교수)과 함께 주요 유방염 원인균 분리·동정 및 항생제감수성검사 관련 표준 실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과의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축산분야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및 ‘전국 젓소 유방

염 방제'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인 가축질병 치료 및 젖소 유방염 예방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는 물론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web)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처 모바일 웹(Web) 홈페이지 주소 : m.mfds.go.kr

주요내용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인 ▲회수/판매중지 ▲외국 위해정보 ▲생활밀착형 정보 등을 초기화면에 배치하고, 대표 메뉴는 ▲정보자료 ▲알림 ▲식약처 소개 등으로 단순화 하여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 맞게 디자인을 최적화하고, 산뜻한 디자인과 체계적인 메뉴 구성으로 가독성과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여 정부 3.0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모바일 웹 접속은 모바일 기기 검색창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mfds.go.kr을 직접 입력하면 바로

접속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맛있는 소시지, 햄 이렇게 만들어 파세요”
식육 즉석 판매 가공 업소 활용 가능한 육제품 제조법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식육 즉석 판매 가공 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육제품 제조 방법」 책자를 발간하고 기술 보급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식육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산 식육의 부유별 균형 소비를 위해 식육 판매와 육제품 제조·판매를 함께 할 수 있는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했다. 이에 발맞춰 농촌진흥청은 식육 가공 업소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햄과 양념육, 떡갈비, 발효육 제품류의 제조법을 개발했다.

이번에 보급하는 육제품 제조 방법은 모두 110종으로 소규모 제조 업소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첨가제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했다. 가열육제품은 프레스햄 30종, 혼합프레스햄 28종이다.

※ 프레스햄 : 식육의 육괴를 염지하여 제조(육함량 85% 이상, 전분 5% 이하).

※ 혼합프레스햄 : 식육의 육괴에 어육의 육괴를 혼합하여 제조(육함량 75% 이상, 전분 8% 이하).

비가열육제품은 한우고기 양념육 10종, 한우불고기 6종, 돼지고기 양념육 15종, 돼지고기 불

고기 4종, 떡갈비류 15종이다. 발효육제품은 돼지 뒷다리 발효생햄과 한우홍두깨로모 제조법 2종이다.

※ 로모 : 단기 발효햄.

이중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제조법은 13종으로 강화 약썩, 황성 더덕, 평창 감자·찰옥수수, 제주 썰매 등을 활용한 프레스햄이다. 책에는 부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햄, 소시지 배합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수록했다.

「육제품 제조 방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또는 농업과학기술도서관(lib.rda.go.kr) 누리집에서 PDF파일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축산물이용과장은 “이번에 보급하는 육제품 제조법과 책자는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식육점이나 소규모 가공업체, 체험장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2년 간 각 100종의 제조법이 실린 책자 2권을 더 출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육제품 제조법 개발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성필남 박사(발효육제품류)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진상근 교수(가열육제품), 경상대학교 양한술 교수(비가열육제품), 전남대학교 진구복 교수(유통기한 설정)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주)하림과 MOU체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규담, 이하 인증



이를 위해 인증원은 하림 담당직원 및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HACCP 특별교육과정을 개설·지원하고, 분야·규모별 인증심사 수수료 감면과 각종 HACCP 기술지원을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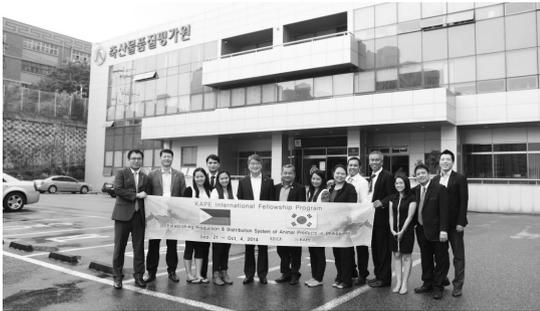
하림은 신규인증 확대계획 및 인증업소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HACCP 관련 현장업무 지원, 하림 소속 농장관리자의 HACCP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주)하림 이문용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축산식품위생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증원의 「HACCP체인(전용망) 구축사업」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된다”며, “하림은 오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식품안전을 검증하는 HACCP인증을 획득하여, 국제적 식품안전 표준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조규담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양 기관 및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주)하림에 전(全)단계 HACCP체인이 구축된다면 이는 「하림」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축산물 위생안전의 대표 브랜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림」을 중심으로 HACCP체인(전용망)이 전국토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KOICA 필리핀 공무원,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축산과정 연수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필리핀 축산관련 공무원 및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를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노력을 통해 성사되었으며 필리핀 축산업 선진화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연수과정은 축산물등급제도와 이력제 등 국내 축산정책에 대한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직원의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수참가자들은 포항제철, 경주 문화유적지 등 견학을 통해 한국의 산업과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

회도 가졌다.

허영 원장은 “이번 필리핀 공무원 연수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내 축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교류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간편·신속 aT 생생정보’
서비스 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10월 15일부터 「aT 생생정보 서비스」를 개시했다.

aT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고객들이 나주로 이전한 분사 방문도 쉽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aT 생생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농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T 생생정보는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던 정보들을 고객지향적으로 시각화, 단순화하여 간편정보 형태로 개발한 것으로 KAMIS(유통정보), KATI(무역정보), FIS(식품통계정보) 등에 게재되고 있는 정보 중 고객이 자주 찾는 실시간 정보 위주로 구성하였다.

수출기상도, 알뜰장보기 등 생생정보 18종(수출 5, 유통3, 식품5, aT사업5)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aT 창조마당을 온라인화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고객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aT 메인 홈페이지 또는 생생정보 전용 URL (info.at.or.kr)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aT는 향후에도 고객이 원하는 농업정보 발굴, 농업 관련기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농식품안전 위기관리매뉴얼」 발간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농협 전 계통사업장의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농식품안전 위기관리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3,000여 개 농협 사업장에 배포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농식품안전 위기관리매뉴얼」은 농협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식품안전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내용 및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식품사고에 대응하여 직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 전 계통사업장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 Check Day」가 식품안전 사고의 사전 예방체계라면, 이번 매뉴얼 발간은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사후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식품안전사고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로 농협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 공급시스템 완성에 한 발 가깝게 다가간 셈이다.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먹거리 안전은 농협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책무로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안전 위기관리매뉴얼을 발간했다”면서 “농협 전 사업장의 직원들이 숙지하여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